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 3주일
제37권 17호(가해) 2017년 3월 19일

[묵상]



<영원한 생명의 샘>

나는 목이 마르다면서,
계속해서 현세의 물만을 마십니다.
현세의 물은 마셔도, 마셔도
또 목이 마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현세의 물만을 찾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보다는
잠시 갈증을 잊게 하는 현세의 물만이 염두에 있으니,

내 마음속에 하느님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하느님이 내 안에 올 수 있겠으며,
하느님이 내 안에 올 수 없으니
어찌 영원한 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영원한 샘을 막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갈증을 없애는 샘을 찾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강제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오후 1:00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4. 현대 교회의 좌표(1984-2000년)

4-3. 북한의 신자 공동체

평양의 '조선 천주교인 협회 중앙 위원회'에서는 1991년 4·6배판 560면에 이르는 「카톨릭 기도서」와 몇몇 선교용 팸플릿을 간행하기도 한다. 북한 신자들에 대한 남한 교회의 관심은 계속 이어져 온다. 한국 교회는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계기로 하여 북한 선교 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95년 서울대교구는 민족 화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는데, 민족 화해 위원회에서는 남북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던 '통일'이란 단어의 틀을 '화해'로 바꾸어, 민족 재일치의 방법과 지향점을 동시에 담아 낸다.

1984년부터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성직자들의 북한 방문이 가능해지면서, 미주 지역에서 교민 사목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 북한 신자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하였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평양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를 전후하여 북한 신자들과 남한 신자들은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만났다. 그뿐 아니라 1998년 5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최창무(崔昌武) 주교 일행이 사목적 목적으로 평양 장충 성당을 방문하여 평양의 신자들을 직접 만났다. 그 후 남한의 성직자와 신자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 신자들과 자주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남한 교회는 북한 신앙 공동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에 거주하던 천주교 신자는 대략 52,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1988년 당시에는 모두 800여 명의 신자들을 기반으로 '조선 천주교인 협회'가 평양에서 창설된다. 1998년 5월 현재 대략 3,000여 명의 신자들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의 성가

<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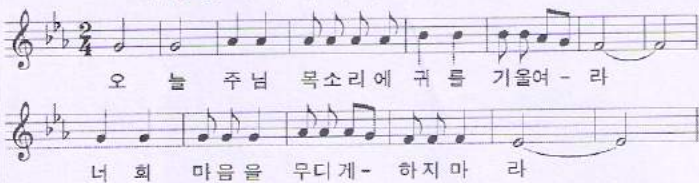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56	156	157
봉헌	267	267	255
성체	280	280	296
파견	151	151	158

토요 저녁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성세근 요셉, 서성용 베드로
	(생)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학생 미사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김정강 세실리아
	(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주일 낮 미사	(연) 송기분 수산나, 박정미 클라라, 변 안드레아 & 변율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김정례 수산나, 연옥 영혼, 황득수, 박환규 토마스 아퀴나스
	(생) 이재용 안드레아가정, 손석 스테파노, 최우영 다니엘 & 최유림 다니엘라 & 최다연 세레나,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강순복 요세피나가정, 김병태 요셉 & 김정희 마리아,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7,3-7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
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
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
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5-8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복음 요한(John)4,5-42<또는4,5-15.19-26.39.40-4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하느님, 당신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우리 주위를 조금만 주의 깊게 둘러보면, 빈곤과 갖가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요. 이렇게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오늘의 제1독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름에 시달리던 그들은, 하느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탈출 17,3)이 부분을 읽으며 많은 분들이 이 백성의 연약한 믿음에 혀를 차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갖가지 신묘한 이적들, 저 너른 홍해를 둘로 갈라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장관을 벌써 잊었던 말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한다면, 광야에서의 어려움 정도는 썩썩하게 이겨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제3자인 우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들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에도 이 백성의 울부짖음을 단순한 불경의 소치로 쉽게 단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장 목이 말라 죽겠는데, 배고픔에 지친 내 아들과 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한편으로는 당신 백성이 광야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고 회심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지만, 그분은 울부짖는 이들의 탄원을 모른 채 앉으시고 모세를 시켜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복음 선포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고통의 현실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야

할 것입니다.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외면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아름답고 경건한 말들을 쏟아낸다 한들, 우리의 말뿐인 복음 선포가 과연 고통 받는 이웃들을 하느님게로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요.

故 이태석 신부님은 남수단 톤즈에서의 교육 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먼저 지었을 것 같다.” 상당히 파격적으로까지 들리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 2,15-16)

목마름에 울부짖는 당신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로 달래주셨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우리 또한 본받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당신은 어떠십니까?

인터넷에서 성격이나 심리테스트를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아직 내가 궁금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달라지고 싶다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데 여전히 원하는 결과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늘 같거나 비슷한데요,

전 잘 빠치고 뒤끝이 긴 성향이라고.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혜경 레나타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유지아 클라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24(금)- 요셉회
 3/31(금)- 소공동체
 4 /7 (금)- 본당 꾸리아
 4/14(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4월 4일(화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희생 애공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
 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13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3월28일(화요일)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아치 에스 행사안내
 - 일시 19일(오늘 주일) 1시30분
 - 준비물 : 한복 혹은 정장, 묵주, 땃세라
 - 대상 :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6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준 방지거 소공동체부장 ☎(310)625-3312

- ◆3월 요셉회 모임
 - 일시: 19일 (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강당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백삼위 주일학교 중 고등부 사순 피정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일시: 17일 금요일 - 19일 주일 (2박 3일)
 4시 귀교예정
 - 장소: 테메클라 꽃동네
 (37885 Hwy. 79 South, Temecula, CA 92592)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 (310)658-6654

- ◆2017년도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일시: 3월 26일 오후 2시~3시
 - 장소: 차후 공지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 19일:홍합 미역국 (\$ 3, 토복 1,2반)
 *주일학교 : 핫도그(5, 2학년)
- 3월 26일: 우거지국 (\$ 0, 토동 2,3반)
 *주일학교 : 쇠고기 주먹밥 (K,1학년)

지나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권오상 권태만 김상규 김원호 김윤진 김일선 김정엽 김찬구 노혜숙 박경주 박광자 박정자 서영자 안태갑 오수인 오신재 우영희 유경자 윤희동 이남현 이민상 이은경 이일길 이재철 이종필 이효세 조화숙 최기호 최미열 최수복 하정화 홍인표	성전헌금	권오상 권태만 김윤진 김정엽 김찬구 노혜숙 박경주 박광자 박정자 안태갑 오수인 유경자 윤희동 이민상 이일길 이효세 조화숙 최기호 최미열 하정화
	합계:\$ 2,625		합계 : \$1,635
주일미사헌금 :\$ 2,257	주일학교 등록 : \$1,900	성물판매이익금: \$403	감사헌금:\$400(최주옥, 익명)

◆2017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
(루카 1,38)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있는 신자
- 준비물: 성경,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및 타올, 컵
미사 지향 및 주일헌금
- 참가비: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 권글라라 ☎(562)228-5629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K.C. R.M)714-343-4771

남가주 소식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예수성심 피정의 집에는 여러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청소년 캠프장도 들어서고 생명 운동의 일환으로 유기농 작물도 생산할 것입니다. 모든 성당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피정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을 도와주십시오!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남명자 테레사 03/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신중철 아브라함 03/11(토) 오후6시 미쿠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3/17(금)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동수 베드로 03/11(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금동균 이나시오 03/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 크리스찬 레지나 03/18(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십자가의 길로 대체 03/31(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3/20(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전하현 마리아 03/1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진우 사도요한 03/18(토)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03/10(금) 오후7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송종두 요한 03/18(토)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정미 아네스 03/10(금)오후7시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십자가의 길로 대체 03/31(금)오후7시30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김은경 올리안나 03/14(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요셉회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미사의 선물

제 3화

참회 예식: 고백 기도

글: 마영제 요한 신부 (사목국) 그림: 송현철 안도니오



미사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구원을 기념하는
가장 거룩한 잔치이지
제사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니다. (사제의 초대 말씀)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세 가지의 참회예식 중
첫째 양식은 전능하신 하느님께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단지 하느님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① 이러한 놀라운 신비와
마주하기 위하여 사제는
경건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회예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고무줄과 함께 드리는 미사

참 회

- ②
✦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니다

잠시 침묵한 다음, 함께 죄를 고백한다.

- ✦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 ③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사제는 사죄경을 읽는다.

-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후 공동체는 성모님, 천사, 성인 및 형제 등 천상과
지상 가족에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자비와 죄의 용서,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전례적인 사죄경으로 마치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죄의 내용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잘못된 일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의무소홀도 포함됩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기도의 전반부가 끝나면
모두 자기 가슴을 치며
"제 탓이오"를 세 번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아픔과 뉘우침을 표현합니다.

참회예식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나약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 예식 동안 우리의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미닉 그라시, 『미사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상 살기』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4. 현대 교회의 좌표(1984-2000년)

4-3. 북한의 신자 공동체

평양의 '조선 천주교인 협회 중앙 위원회'에서는 1991년 4·6배판 560면에 이르는 「카톨릭 기도서」와 몇몇 선교용 팸플릿을 간행하기도 한다. 북한 신자들에 대한 남한 교회의 관심은 계속 이어져 온다. 한국 교회는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계기로 하여 북한 선교 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95년 서울대교구는 민족 화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는데, 민족 화해 위원회에서는 남북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던 '통일'이란 단어의 틀을 '화해'로 바꾸어, 민족 재일치의 방법과 지향점을 동시에 담아 낸다.

1984년부터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성직자들의 북한 방문이 가능해지면서, 미주 지역에서 교민 사목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 북한 신자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하였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평양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를 전후하여 북한 신자들과 남한 신자들은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만났다. 그뿐 아니라 1998년 5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최창무(崔昌武) 주교 일행이 사목적 목적으로 평양 장충 성당을 방문하여 평양의 신자들을 직접 만났다. 그 후 남한의 성직자와 신자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 신자들과 자주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남한 교회는 북한 신앙 공동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에 거주하던 천주교 신자는 대략 52,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1988년 당시에는 모두 800여 명의 신자들을 기반으로 '조선 천주교인 협회'가 평양에서 창설된다. 1998년 5월 현재 대략 3,000여 명의 신자들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의 성가

<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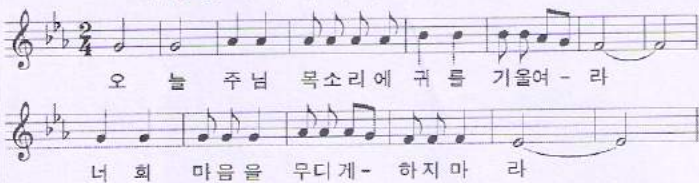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56	156	157
봉헌	267	267	255
성체	280	280	296
파견	151	151	158

토요 저녁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성세근 요셉, 서성용 베드로
	(생)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학생 미사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김정강 세실리아
	(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주일 낮 미사	(연) 송기분 수산나, 박정미 클라라, 변 안드레아 & 변율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김정례 수산나, 연옥 영혼, 황득수, 박환규 토마스 아퀴나스
	(생) 이재용 안드레아가정, 손석 스테파노, 최우영 다니엘 & 최유림 다니엘라 & 최다연 세레나,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강순복 요세피나가정, 김병태 요셉 & 김정희 마리아,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7,3-7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5-8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복음 요한(John)4,5-42<또는4,5-15.19-26.39.40-4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빌리지에 몰네)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네)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